



‘영화 같은 피서를 꿈꾸다면 여기로.’ 영화 ‘구르를 버서난 달처럼’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경남 창녕의 우포늪은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스포츠동아DB

새로움이 된다는... 낯선 곳으로

Somewhere special!...나도 주인공이 된다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매니저의 추천 휴가지

‘앗! 저기 어디야?’ 드라마와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곳들은 왜 그렇게 멋있을까.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며 스토리와 어우러지는 촬영지는 누구나 한 번쯤 찾아가보고 싶은 바람을 갖게 된다. 이런 멋진 장소를 찾아내는 ‘해안’을 지닌 사람들, 바로 로케이션 매니저로 불리는 스태프이다. 이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작품 속 이야기에 꼭 맞는 멋진 배경을 찾아낸다. 인기 드라마와 영화의 로케이션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스포츠동아 독자 여러분에게 최고의 휴가지를 추천했다.

●경남 창녕 우포늪(영화 ‘구르를 버서난 달처럼’)

추천: ‘구르를 버서난 달처럼’ 오승현 프로듀서
데이트 코스로 이 곳 만큼 좋은 여행지는 없다. 영화 ‘구르를 버서난 달처럼’에서 황정민과 백성현이 갈대숲을 걷다가 자객들을 만나는 장면의 배경. 그리 가깝지는 않지만 당일 여행 코스로도 손색이 없다. 낙동강 지류인 토평천 유역에서 무려 1억4000만년 전에 생성된,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이다. 국제습지조약 보존습지로 지정된 곳이기도 한 우포늪은 빼곡하면서도 하늘거리는 갈대가 가득한 숲과 원시림처럼 우거진 나무가 주는 청량한 느낌이 제 맛이다. 자연생태계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휴식을 취하기 알맞다.



●전북 무주 월하탄 계곡(영화 ‘달빛 길어올리기’)

추천: 이대영 전주영상위원회 촬영지원팀
무주 구천동의 33경 중 한 곳. 임권택 감독의 영화 ‘달빛 길어올리기’의 마지막 장면을 찍은 명소다. ‘달빛 길어올리기’는 한지에 얽힌 이야기. 달빛을 그대로 품어내는 물이 빛어내는 천년의 한지, 그 맑은 기운을 품은 아름다움이 스크린 가득 묻어났다. 그 배경이 월하탄 계곡이다. 선녀들이 달빛 아래 춤을 추며 내려오듯 폭포수가 쏟아져 푸르디 푸른 담소를 이룬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무주 구천동 계곡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한 월하탄 계곡을 보고 임권택 감독은 “바로 이 곳이다”고 감탄했다고 한다. 청아한 듯 들려오는 물소리와 시원한 기운이 넘쳐나는 계곡의 아름다움, 월하탄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지 말라.



●강원도 홍천 살둔산정(영화 ‘두 사람이다’)

추천: ‘두 사람이다’ 김용대 프로듀서
답답한 도시 생활에 싫증을 느낀다면 강원도 홍천으로 떠나자. 김용대 프로듀서는 ‘살만한 돈덕’이란 뜻의 이 곳을 섭외하는 데 꼬박 3개월이 걸렸다. 영화에서는 여주인공 윤진서가 살해 사건의 실체를 알기 위해 찾은 쓸쓸스러운 산장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황토향이 가득한 아름다운 곳이다. 여행 마니아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강원도 전통의 통나무 귀퉁집이다. 산장 옆으로 내린천 지류인 계곡물이 흐른다. 한국인이 살고 싶은 집 100선 중에 포함될 정도로 고즈넉한 맛을 살렸다. 특히 2층 침풍루는 ‘바람을 베고 누는 누각’이라는 멋진 이름답게 더운 여름 선선한 바람을 쐬기에 좋다.



●강원도 강릉 초당(KBS 2TV ‘조금 야한 우리 연애’)

추천: ‘타짜’ 조남철 로케이션 매니저
지난해 KBS 2TV 단막극 ‘조금 야한 우리 연애’에서 이선균과 황우슬혜가 숲 속 셋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격정적인 키스를 나누는 곳. 많은 누리꾼들에게 이미 눈도장을 받은 곳이다. 경포호수를 끼고 있다. 경포호는 ‘하늘의 달’과 ‘호수 안의 달’ 그리고 호수를 바라보는 연인의 ‘눈 안의 달’ 등 ‘세계의 달이 뜨는 곳’으로 불릴 만큼 고즈넉한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다. 초당을 에두르는 솔밭길을 걸으며 여름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식히는 맛도 일품이다. 무엇보다 명성 높은 초당두부 맛을 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엔터테인먼트부

연예뉴스 스테이션

차량 침수·정전·일정 연기...정점 집중 폭우에 곤욕

가수 정점(브라운아이드소울·사진)이 중부권의 집중 폭우로 곤욕을 치렀다. 폭우로 집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아끼던 승용차가 망가지는 피해를 입은데다 서울 강남 아파트 역시 정전 사태를 겪었다. 또한 그가 진행을 맡고 있는 MBC F M4U ‘푸른밤 정점입니다’에서 28일 열 예정이었던 ‘여의나루 가요제’도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판단 아래 다음 주로 연기됐다.

태진아 부자 협박 최희진, 징역 2년 원심 확정

가수 태진아와 이부 부자를 협박한 작사가 최희진(사진)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태진아와 이부 부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희진은 인터넷과 미니홈피 등에 태진아와 이부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면 1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기찬·솔비, ‘특식 히어로’로 뮤지컬 데뷔

가수 이기찬과 솔비가 뮤지컬 ‘특식 히어로’의 남녀 주인공을 맡아 뮤지컬에 데뷔한다. 작년 여름 국내에서 처음 공연됐던 미국 뮤지컬 ‘특식 히어로’는 소심한 청년 멜빈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악당과 부패한 권력에 맞서 영웅

으로 활약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이석준과 최우리가 이기찬과 솔비와 함께 더블 캐스팅됐다.

박시연 ‘여인의 향기’ 주연...2년만에 스크린 복귀

박시연(사진)이 영화 ‘여인의 향기(가제)’에 출연한다. ‘여인의 향기’는 박시연이 2009년 ‘마린보이’ 이후 2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작품이다. ‘용서는 없다’로 데뷔한 김형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박시연과 함께 박희순과 주상욱이 캐스팅됐다. 박시연은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형사와 두뇌싸움을 벌이는 미스터리한 여인 역을 맡았다.

배수빈·류현경 DMZ다큐영화제 홍보대사 위촉

배수빈과 류현경이 제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DMZ DOCS 2011)의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배수빈과 류현경은 8월 말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간다. 배수빈은 영화 ‘애자’ ‘걸프렌즈’와 드라마 ‘주몽’ ‘찬란한 유산’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으며 영화 ‘방자전’ ‘시라노 연애 조각단’ 등에 출연했던 류현경은 단편 영화감독으로도 활약했다.

패셔니스타 공효진, 코카콜라 이은음로 모델 선정

공효진(사진)이 코카콜라의 이은음로 ‘아쿠아리우스’ 모델로 나선다. 코카콜라 측은 28일 “건강하고 사랑스런 외모와 탄탄한 연기력, 세련된 패션 감각을 지닌 공효진이 브랜드 이미지에 적합해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아쿠아리우스’ 한국 광고 모델은 공효진이 처음이다. 공효진은 8월1일부터 ‘아쿠아리우스’를 광고한다.

공연 랭킹

7월 22일~7월 28일 자료:인터파크

2위 공연 정보보기

순위	공연명	주연
1	뮤지컬 <삼총사>	신성우·유준상
2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조승우·홍광호
3	뮤지컬 <잭더리퍼>	신성우·유준상
4	가족 뮤지컬 <피터팬>	-
5	액션라이브쇼 파워레인저 정글포스	-
6	뉴보잉오잉 1탄	설주미·황유진
7	가족뮤지컬 ‘슈퍼영웅 뽀로로’	-
8	썸머 클래식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9	여름방학공연 <어린이 돈키호테>	-
10	뮤지컬 <그리스>	장지우·김용주

스타, 그때의 오늘

1991년 ‘아~ 응애애요’ 김홍국 ‘아들바보’가 되다



‘딸바보’ 혹은 ‘아들바보’, 자신의 딸과 아들 등 자녀들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스텝들이 드러내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부모를 뜻하는 신조어다. 이젠 ‘딸바보’는 옛말이 되었다. 끝없는 자녀 사랑은 흥이 될 수 없는 법.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자녀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미덕이 되었다.

가수 겸 방송인 김홍국은 20여년 전부터 ‘아들바보’였다. 1991년 오늘, 김홍국이 아들을 얻었다. 1990년 10월 31일 미스코리아 대전 출신 윤태영 씨와 나이 서른에 결혼한 김홍국은 3.7kg의 건강한 아들을 얻고 아빠가 됐다.

당시 김홍국의 특남 소식이 화제를 모은 건 그가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 패널로 출연해 한창 뜨거운 인기를 모았던 덕분이다.

‘아~! 응애애요~!’라는 유행어를 낳으며 최고의 인기를 얻은 그는 특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내의 출산일을 ‘카운트다운’하며 화제가 됐다. 무엇보다 서울 번동 태생인 자신과 부인 윤 씨가 경북 칠곡 출신이라는 점에서 김홍국은 ‘일요일 일요일 밤에’를 통해 아이를 ‘번철이’로 소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홍국의 그 아들 ‘번철이’ 김동현 군은 이제 어엿한 스포츠 청년으로 자라났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

사망보장은 기본, 실손의료비에 연금전환도 가능합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왜

많은 분들이 교보다이렉트 종신보험을 선택했을까요?

무배당 **교보다이렉트 유니버설종신보험II**
과보상액(보험금)이 높고, 연금도, 장사비용, 장사비용까지 보장할 수 있습니다.

080-399-0099 KYOBO 교보생명